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이 소슬하여

만산초목이 잎잎마다 추성이라

새벽 서리치는 날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래 돌힌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벽사창천 세우(細雨)되어 뿌리면서 보고지고.

추월 몇몇 해를 주야불리 하옵다가

천산만수(轉身萬愁) 머나먼데 소식조차 돈절하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그리움을 견딜소냐

어와 못 잊을사 임 그려 못 잊을사

용천검 태아검에 비수단검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가지 버혀 와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한데 이어 흐르나니

물 버히는 칼이 없고 정(情) 버히는 칼도 없네

물 끊기도 어렵거든 마음 끊기 어려워라

용문지석 가배압고 유정지수 흐르나니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되고 벽해가 상전 되다

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소냐.

내 이리 그리운 줄 아오시나 모르시나

내 아니 잊었거든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도일 때 있었으니

엄상이 차다한들 우로(雨露)가 아니 올까

울음 울어 떠난 입을 웃음 웃어 만나고저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이내 간장(肝腸)이 다 타오니 무엇으로 끈잔 말고.

끄기가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천상수 얻어오면 끝 법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 발아 말이 없다.

차라리 쾌(快)히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저

설움 모여 병이 되니 백 가지 증 한데 난다

배고파 허기증과 몸 추워 냉증(冷症)이요

잠 못 들어 성화증에 조갈증은 예증이라.

술로 드온 병이오면 술을 먹어 고치오며

임으로 든 병이 오면 입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功名)으로 든 병에는 공명하여 고치잔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살바지에 앉자하랴.

신농씨 꿈에 만나 병 고친 약을 배워

소심환 회심단(回心丹)에 건심탕을 먹었은들

천금준마 잃은 후에 외양 고쳐 무엇하리

갓은 성냥 다 배운 후에 눈 어두운 일이로다

어와 이 사이에 해 벌써 저물었다.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오동잎이 떨어지고 가을바람(金風)이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불어오니

온 산의 초목들은 잎사귀마다 가을소리를 낸다.

새벽 서리 내리는 날에 외기러기 슬피울 때

잠 없는 내가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롭게 나더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임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날개 돌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 싶다.

만 리나 되는 넓은 하늘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 싶다.

오동잎 떨어지는 밤에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 싶다.

푸른 비단의 창문에 가는 비가 되어 뿌려나 보고 싶다

여러 해 동안 밤이고 낮이고 이별 없이 지내다가

많은 산과 여러 갈래의 많은 물로 머나먼데 소식조차 끊어지니

쇠나 돌로 된 마음이 아니거든 그리움을 견딜소냐.(견딜 수 없다)

아아! 못 잊겠다. 임이 그리워 못 잊겠다.

용천검, 태아검처럼 이름난 칼을 가져 와서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껏 베어 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한데 뭉쳐 이어져 흐르나니

물을 베는 칼도 없고 정(情)을 베어내는 칼도 없네.

물을 끊기도 어려워니 마음 끊기를 어찌 할 수 있으리

임금을 그리는 내 마음에 비하면 매우 크고 무거운 바위도 오히려 가뻑고,

정이 있는 물, 즉 ‘나’의 마음은 계속 흐를 것이니.

세상 천지가 변하여 뿔나무 발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뿔나무 발이 된다고 하여

임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을소냐

내가 이렇게 그리워 하는 줄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그리운 줄을 임이 설마 잊었으랴.

바람과 구름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된서리가 차다한들 기껏 비와 이슬이 아니 오겠는가.

울음 울고 떠난 입을 웃음 웃고 만나고자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속이 다 타오르니 무엇으로 끈단 말인가,

끄기가 어렵기로는 오장(五臟)에 붙은 불이로다.

하늘의 신비한 물을 얻어온다면 끝 법도 하다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서 말이 없네.

차라리 얼른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자

설움이 모여 병이 되니 백 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나는구나.

배고파서 허기증이 나고, 몸이 추어 냉증이 나고,

잠 못 들어서 성화를 부리고 목이 늘 마른 것은 늘 있는 병이라.

술로 든 병이라면 술을 먹어 고치고

임 때문에 난 병이라면 입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功名)으로 든 병에는 공명(功名)하여 고치자고 한들

화살을 맞고 놀란 새가 화살처럼 곧은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할 것이냐.

신농씨를 꿈에 만나 병을 고치는 약을 물어

온갖 약을 먹는다한들

천금을 주고 산 비싼 말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다 배우자마자 눈이 멀게 되는 격이라.

아아! 어느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